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천안시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방문

- 천안 배·포도·멜론 등 우수 농산물 판로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기대
-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연 10개소 및 온라인 직거래 지원 지속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국회소통관 앞 마당에서 열린 천안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찾아 참여 농업인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천안의 배, 포도, 멜론 등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농산물이 한자리에 모였다. 농식품부는 직거래장터가 농업인과 소비자가 직접 만나 신뢰를 쌓는 상생의 자리로, 우수한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6년부터 특·광역시와 지역 시·군이 협력하는 소비지 중심 ‘도농상생장터’ 10개소를 선정·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마케터와 스마트 스튜디오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판로 개척이 어려운 중소농과 고령농 등이 유통환경 변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오늘 행사가 천안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농산물 직거래가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유통방식으로 자리 잡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신재 (044-201-2271)
		담당자	사무관	조래운 (044-201-2296)